

수험생 40%, 정시 이과 → 문과 교차지원 고려

작년보다 21%p 감소...통합수능 3년차 이과 선호 현상 더 심해져 킬러문항 배제 반대 50%...“쉬운 국어 예상 속 학습패턴 변화 없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험생 10명 가운데 4명은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수험생 상당수는 올해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역을 중심으로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런 변화에도 대부분은 학습패턴을 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로학원은 이달 14~21일 고3 수험생과 졸업생 67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수능에서 과학탐구에 응시할 수험생(이과) 가운데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교차지원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9.5%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60.8%)보다 2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중로학원은 통합수능 3년차에 이과-문과 교차

지원을 검토하는 수험생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반도체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의대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과 선호 현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수시모집의 경우 교차지원 의사가 있다는 수험생 비율이 45.5%로 전년(49.5%)보다 소폭 낮아졌다.

그런가 하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출제기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과목은 국어영역(57.9%)이 꼽혔다.

국어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응답자의 83.6%가 독서(비문학 파트)라고 답했고, 수학 영역의 경우 52.2%가 ‘공통과목 주관식 문항’이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예상 난도는 ‘쉬워질 것이다’가 53.2%, ‘현재와 큰 차이 없을 것이다’가 37.5%였다.

다만, 출제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인의 수능 준비 방법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수험생이 67.6%, ‘9월 모의평가가 이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18.9%로 사실상 86.5%가 준비 패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매우 반대’가 50.2%, ‘상관없다’가 23.6%,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이 26.3%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고난도 문항은 잘 못된 것(35.0%) ▲학습 부담이 경감될 것(25.0%)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15.0%) 등이 꼽혔고, 반대하는 이유는 최상위 변별력이 떨어질 것(62.8%)이라는 절반을 훌쩍 넘겼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기존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수능 준비 측면에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9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따라 준비방법 등이 일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키르기스 오시2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한국어·문화 교육 체계적 운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원하는 키르기스스탄 오시2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세계 곳곳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인 광주대학교는 이번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우수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거점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화 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대 정정환 국제협력처장과 공하

림 국제교육센터장, 배인수 팀원은 지난 7월 오시 국립대학교 및 오시2 세종학당을 방문, 오시2 세종학당 김정영 교수(오시국립대), 키르기스스탄 오시국립대 코조베코프 쿠다이베르디 가파라리예비치 총장과 회의를 갖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정환 국제협력처장은 “이번 오시2 세종학당 선정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폭넓게 전파하고, 양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학교는 한국어교육 전공 및 다문화 융합전공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현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능력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꿈키움캠퍼스 2기’ 운영

정보과학·국제정치·생태와 환경 등 19개 강좌

전남지역 고교생들이 대학 등에서 자신의 꿈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꿈키움캠퍼스 2기’가 운영된다. 전남도교육청 다음달 11일까지 지역 대학·기관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꿈키움캠퍼스 2기’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키움캠퍼스’는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과목과 전문교과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기과정은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전남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과 지리산생태탐방원(구례), 국립청소년우주센터(고흥) 2개 기관에서 총 19개 강좌가 펼쳐진다.

목포대에서는 물리학·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등의 과목이 개설됐으며 순천대는 공학 일반, 매체 미술, 패션 디자인의 기초, 생명과학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남대에서는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조선대는

무용 기초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드로잉, 한국외대에서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국제법 등이 개설됐다. 또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생태와 환경’,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인류와 우주 대항해시대’를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학생들은 각 과목에 맞는 대학을 찾아 3박 4일 합숙하면서 진행되는 실기 집중과정 11개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뤄지는 온라인 강좌 8개를 선택해 수강한다.

정선영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꿈키움 캠퍼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일방교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는 능동적 학습 활동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시도교육청 교권침해 소송비

4년간 31건 지원...상담도 부족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소송비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청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건수를 합산해도 31건으로 나타났다. 경북, 광주,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등 9개 교육청은 5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소송을 지원한 적이 없었다.

아울러 2021년 한 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상담 및 치료비 총액은 6억 2천607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원 1인의 심리 상담을 위해 10회 상담 기준 100만원을 지원했다면 가정하면 약 630명의 교사가 지원받은 것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천109건을 감안하면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교사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경북, 대전, 부산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소송비나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원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결정을 받아야 했다.

전교조는 “올해도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심성이 될 공산이 크다”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광산구청과 ‘마음챙김’ 사업 추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함께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최근 광산구청(구청장 박병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사장 양동호)과 ‘마음챙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마음에 봄을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사업은 명상과 마인드힐링(Mind Healing)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지정 기타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가들을 초청해 마음(MAUM)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여대는 광산구 복지 현장 활동가를 위한 맞춤형 마음(MAUM)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기타 사업비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마음(MAUM)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연계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음챙김 사업은 MAUM교육의 가치를 일깨우고 마음챙김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음생태계를 구



축하는 것이다. 향후 일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합돌봄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광산구청,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민관학 연계 협력모델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방학 중 돌봄교실 초등생에 도시락

전남교육청이 방학 중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44억원을 확보해 여름·겨울방학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8000원 상당의 ‘행복도시락’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초등학교는 403개교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과 초1 에듀케어를 신청한 학생 1만873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학 중에는 학교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도시

락 구입비를 지원하며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대용량 음식을 제공받기로 방침을 세운 학교는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락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와 소규모 학교는 인근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방학 중 학부모의 큰 고민거리였던 초등학생들의 점심 식사가 도시락 지원으로 어느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